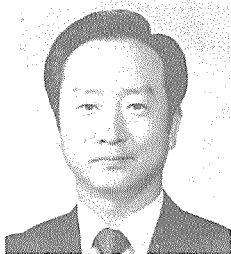


1988年度 輸出入 政策의 方向



辛 國 煥
商工部 商易局長

지난 '87년의 수출은 量的 팽목할 신장과 質的 향상을 이루고 수입에 있어서도 尙日逆調 개선 등의 효과를 이루었다. 今年에는 수출의 질적 혁신, 淸산성 확보, 저변 확대, 수입시장 다변화, 지역제 무역의 균형화, 新시장 개척, 선진 무역체제 정립 등을 추진하여 1,000억弗 무역대국으로의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1. '87 貿易의 評價

지난해 우리 輸出은 471億弗로 '76年 以後 가장 높은 35.7%의 增加率을 記錄하여 量的으로 淸목할만한 伸張을 이룩하였으며, 電子, 自動車 등 技術集約商品의 比重이 높아지고 輸出單價 上昇이 輸出增加를 主導하는 等質的으로 도 크게 尙上되었다. 이러한 健實한 輸出增大의 바탕위에서 輸入自由化도 淸실히 推進되어 自由化率은 93.6%로 높아졌으며 輸入은 28.5% 增加한 406億弗을 記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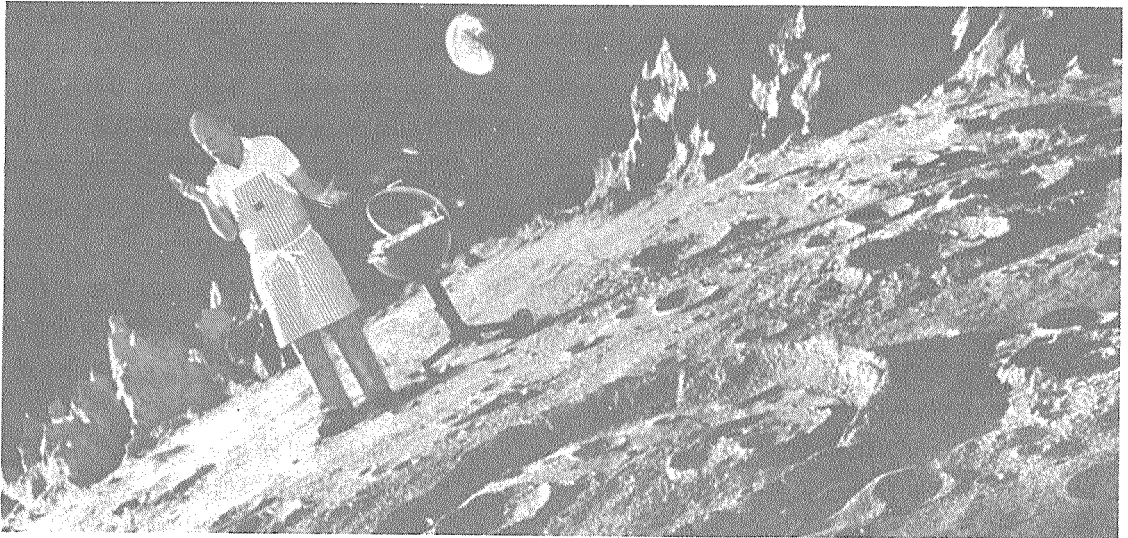
收支面에서도 貿易黑字가 79億弗로 擴大되어 黑字基盤이 굳어졌으며, 이에 따라 總外債도 355億弗로 '86年에 比해 90億弗이나 줄어들었고, 그 동안 늘어나기만 하였던 尙日逆調 또한 '86年의 54億弗에서 지난해에는 52億弗로 改善되어 輸入의 尙日依存이 緩和되는 등 '87年은 우리 貿易史에 있어 最高의 해를 記錄하였다.

2. '88年의 貿易環境

가. 尙外環境

今年度 尙外貿易環境은 작년보다 惡化되리라는 展望이 支配的이다. 그 동안 우리 貿易에 有利한 與件을 造成해 주었던 3低의 退潮와 高賃金, 高金利, 高物價, 高원貨價值 등 4高 時代의 到來, 大恐慌의 迫頭 등 어두운 展望이 대두되는 가운데 世界經濟의 不淸實性이 커지고 있으며, 石油波動 以後 世界經濟 不況의 長期化, 非關稅障壁을 통한 保護貿易主義의 強化, 先進國의 産業構造調整 遲延 등 世界貿易의 增大를 沮害하는 要因이 한둘이 아닌 狀況이다.

'85년부터 下降曲線을 긋기 시작한 世界經濟는 今年에는 2.2%의 低成長에 그치고 交易物量 또한 '86年의 3.8%보다 鈍化된 3.5% 增加에 머무를 것이라는 展望속에서 지난해 10月



지난 '87년은 우리나라 貿易史에 있어서 최고의 해를 기록하였다.

뉴욕, 東京 등 証券市場에서의 大暴落으로 不安이 더욱 高潮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貿易不均衡 是正 展望 不透明에 따른 外換市場의 動搖, 國際原資材 價格의 上昇, 油價, 金利, 換率 등 經濟諸變數의 變動幅이 커지는 등 世界經濟는 予測을 不許하고 있다. 나아가 우리의 交易規模 擴大에 따라 開途國으로서의 各種 惠澤은 縮小되고 우리의 國際的 責任과 義務는 強調되는 한편, 後發開途國의 追躰은 本格化될 展望이어서 우리 貿易은 그 어느때보다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나. 對內環境

한편, 國內의으로도 事情은 별로 나을게 없을 것 같다. 지난해 勞使 갈등 以後의 人件費 上昇, 貿易金融縮小, 關稅徵收猶予期間 短縮 등으로 인한 金融費用의 增加와 原資材價格의 不安으로 輸出價格 競爭條件이 더욱 不利해지고, 特히 換率은 지난해 8.7% 平價切上에 이어 今年에도 追加 切上이 不可避할 展望이어서 輸出業體의 採算性은 크게 惡化될 것으로 予想된다.

이에 따라 輸出業體의 投資意慾은 크게 萎縮되어 輸出供給能力에 蹉跌이 우려되고 있으며 經濟發展 및 與件變化에 따라 勤勞者의 福祉要求가 增大되어 企業의 生産性 向上과 技術開發 努力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어려운 國內外 與件 속에서

도 政治的으로 民主化와 安定, 올림픽을 前後한 輸出商品의 對外이미지 提高 등 輸出에 有利한 與件의 造成 또한 可能視되며 社會全般에 걸친 自律化, 開放化의 進展으로 市場經濟體制가 더욱 活性化되고 올림픽을 契機로 東歐圈, 中共 등 對特殊地域 交易霧困氣 改善으로 새로운 市場開拓의 여지도 있어 業界의 努力如何에 따라서는 輸出增大와 企業體質強化의 契機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 같다.

3. '88年度 輸出入 展望

이처럼 어두운 對內外 與件으로 今年度 貿易은 量的인 面에서 去年 해와 같은 큰 伸張은 期待하기 어려울 것 같다. 元貨 切上 速度와 賃金 上昇幅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나 대체로 輸出은 元貨 切上, 賃金 上昇 등에 따른 競爭力 弱화로 8~13%의 낮은 增加에 머물고 輸入은 市場開放措置의 擴大에 힘입어 21~23%의 비교적 높은 伸張率을 維持할 展望이다. 이에 따라 우리 貿易은 처음으로 1,000億弗을 넘어 世界 10位圈의 交易大國으로 올라 설 展望이고 貿易 収支는 去年 해보다 약 30億弗가량 줄어든 40~50億弗, 經常収支는 60億弗의 黒字를 記錄하여 黒字基調가 確固히 定着될 것으로 期待하고 있다.

品目別 輸出로는 重化學製品의 比重이 더욱

높아지고 특히 自動車, 電子 등의 輸出이 比較의 큰 幅인 21.5%, 13.8%씩 增加할 展望이며 輕工業製品은 9.5% 增加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輸入은 用途別로 볼때 消費財 보다는 原資材와 資本財, 産業別로는 機械類, 化工品の 輸入이 比較的 크게 增加할 것으로 보인다.

4. '88年度 輸出入 政策

今年度 우리 貿易은 1,000億弗을 넘게 되어 政府는 이러한 規模에 걸맞는 體質改善과 構造高度化, 民主化·開放化에 副應한 先進貿易制度의 定着에 今年度 貿易政策의 重點을 두고 輸出의 質的 革新과 供給能力의 지속적 補充, 輸入의 實質的 開放과 地域別 貿易의 均衡化를 꾸준히 推進할 計劃이다. 貿易政策의 골간은 過去의 輸出中心에서 貿易의 擴大 均衡의 次元에 力點을 두고 이를 위한 制度의 改善과 政策的 努力을 펴나갈 것이며 輸出振興政策面에서도 지금까지의 貿易金融, 關稅徵收猶予制度 등 稅制, 金融, 外換面에서의 支援制度가 계속 縮小되고 앞으로도 이러한 輸出助長制度의 縮小 내지 轉換이 不可避할 展望임에 따라 輸出業界의 採算性 維持, 向上에 輸出政策의 초점을 맞추어 나갈 것이다.

今年度 貿易振興을 위해서는 첫째, 輸出의 質的 革新과 採算性 確保 施策을 強化할 것이다. 高附加價值 中心으로 輸出構造를 高度化해 나가기 위해 技術集約商品을 輸出主導産業으로 育成하고 世界 一流化 事業, 工業基盤技術向上, 品質管理 運動의 擴散을 통해 輸出商品의 競爭力을 提高시킬 것이며 디자인 開發 및 自己商標 輸出增大를 통해 우리 商品에 대한 中·低級品의 認識을 是正해 갈 것이다. 또한 올림픽의 해를 맞아 우리 商品의 對外聲價 提高와 輸出振興의 契機로 活用하는 方案을 적극 講究할 것이다.

둘째로, 輸出底辺을 넓혀 輸出供給能力面에서 蹉跌이 없도록 年初에 輸出産業 實態調査를 通하여 未備點을 把握, 補完하고 萎縮된 投資雰圍氣를 刷新할 計劃이다. 中小企業育成施策을 通하여 中小企業 中心으로 輸出供給能力을 擴

充해 나가는 同時에 綜合商社, 특히 高麗貿易의 中小企業 輸出入支援 機能을 強化하여 中小企業의 市場開拓活動을 支援해 나갈 것이며, 地方企業의 輸出産業化를 위해 有關機關의 地方支部設置 擴大와 地方-中央間 情報連結體制를 構築함으로써 그 동안 地方貿易의 가장 큰 弱點이 었던 情報不足問題를 解消시켜 나갈 것이다. 한편, 供給能力 擴大에 맞추어 人力需給 또한 隘路가 없도록 技術·技能人力 및 貿易·通商 專門人力의 養成을 擴大하여 高級人力의 供給을 늘려 나갈 것이다.

세째로, 지난해 원貨 切上, 人件費 上昇 등으로 크게 惡化된 輸出採算性 確保를 위하여 關聯施策을 補完할 方針이다. 輸出 稅값반기와 輸出秩序 維持를 위한 對業界 弘報를 強化하여 아직도 一部 남아있는 過當競爭 및 物量爲主의 輸出을 是正해 나갈 것이며 輸出節次 簡素化를 통해 附帶費用을 節減하고 外換, 金融, 關稅, 通關 등 輸出關聯制度의 改善을 通하여 價格競爭 條件을 綜合的으로 造成할 計劃이다. 이밖에 輸出增大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分期別로 原資材의 需給動向을 點檢, 補完하여 原資材 需給을 圓滑히 하고, 특히 中小企業의 原資材 確保에 蹉跌이 없도록 關聯團體의 共同購買, 商社備蓄機能 強化 등 諸般 措置를 講究할 것이다.

한편, 向後 比較優位가 予想되는 産業設備, 機械類 등 資本財의 輸出擴大를 위해 延拓輸出 및 輸出保險制度의 活性化 方案을 講究할 것이다.

네째로는 輸出의 꾸준한 增大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輸入의 實質的 開放과 輸入市場多邊化를 促進할 것이다. 今年으로 予示가 끝나는 輸入自由化計劃을 '91년까지 延長해서 予示하고 輸入監視制度 廢止, 輸入先多邊化品目 縮小, 輸入檢査·試驗制度의 全面 再檢討로 輸入을 圓滑化 함 으로써 實質的 開放을 해 나갈 것이다. 黑字基調로 轉換되어 감에 따라 過去의 輸入規制의 節次의 改善과 先進國型 輸入管理制度를 確立하고 輸入을 有利하게 할 수 있도록 輸入情報提供을 擴大할 것이다. 이와 함께 輸入先 轉換 施策의 꾸준한 展開과 改善, 貿易黑字國에 대한 輸入促進을 위해 購買使節團 派遣, A/S體制 構築, 對

韓輸出隘路事項 解決 등 各種 制度的 補完策을 講究할 것이다.

다섯째, 地域制 貿易의 均衡化와 新市場開拓 活動을 強化해 나갈 것이다. 우선 對美貿易에 있어서는 基本的으로 輸出을 自制하는 政策보다는 輸入增大를 통한 擴大 均衡을 圖謀함으로써 長期的으로 對美 進出을 더욱 늘려 나갈 수 있는 方案을 模索할 것이다. 今年에는 美國의 對韓通商壓力이 어느때 보다 強化될 것으로 予想됨에 따라 不均衡 是正을 위한 努力의 一環으로 國內産業에 미치는 影響을 最小化하는 範圍內에서 美國關心事項을 伸縮的으로 受容해 나가는 努力과 아울러 對美輸入增大를 위하여 購買 使節團 派遣, 外貨貸付制度的 擴大 施行, 輸出 및 輸入先 多邊化 努力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換率問題는 美國이 完全 自由貿易國인 香港, 싱가폴에 대해서도 切上 要請을 하고 있는 것을 볼때 우리가 市場開放을 推進한다고 해서 換率 切上 壓力이 무마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競争國의 平價切上速度를 감안, 점진적으로 實勢를 반영하되 全産業에 미칠 影響을 考慮하여 매우 慎重을 기해야 하리라 본다. 또한 對日逆調 改善은 지난해 逆調幅 縮小로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逆調幅 45億弗 達成을 위해 總力을 기울일 것이며 지난해의 輸出增大 經驗을 살려 輸出 有望戰略商品의 發掘, 支援, 市場開拓資金支援 擴大, 對日輸出促進團 派遣 및 對韓購買使節團 誘致 外에도 東京에 韓國商品直売場 追加 設置,

僑胞母國商品購買運動 등 市場開拓活動을 多角的으로 展開할 것이다. 또한 機械類, 部品, 素材 國産化 施策도 보다 內實있게 推進하여 輸入 代替와 對日依存의 産業構造를 根本的으로 是正해 나가는 한편, 對日通商交渉은 輸出增大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日本市場의 開放에 力點을 두어 實利爲主로 推進해 나갈 것이다. 美國, 日本 外의 余他國에 대해서도 黑字國, 赤字國, 開途國, 特殊地域 등 4個圈域으로 区分하여 細部推進對策을 마련, 施行할 것이며 海外投資, 産業設備 輸出, 技術交流 등 多樣한 協力方案을 模索할 것이다. 또한 날로 惡化돼 가고 있는 通商環境에 對備하여 通商交涉能力을 培養하고, 새로운 國際規範 定立을 위한 烏魯과이 라운드에 積極 參與하는 한편, GSTP, 纖維輸出開途國會議 등을 통해 對開途國 通商協力도 強化해 나갈 것이다.

끝으로 長期的 課題로서 黑字基調의 定着과 1,000億弗 貿易大國에 걸맞도록 先進貿易體制 定立을 서두를 것이다. 過去 輸出振興一辺倒 政策에서 벗어나 輸出入 擴大均衡, 나아가 國際化로의 意識改革과 貿易支援體制의 效率의 改編을 推進하고 民主化, 開放化 時代에 맞춰 民間에 대한 委任, 委託 擴大와 政策決定의 民主化를 圖謀해 나갈 것이다. 지난해 新設한 産業被害救濟制度的 早期定着도 서두를 것이며 날로 늘어가는 貿易情報의 效率의 管理·活用을 위해 貿易電算 시스템도 開發·普及해 갈 것이다.

